



1위 질주를 하고 있는 KIA가 '영건'들의 기록 행진에 웃고 있다. 마무리 정해영(왼쪽)은 지난 24일 키움전에서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의 새 주인공이 됐고 김도영은 '30-30'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정해영, 최연소 100세이브...임창용 기록 24년만에 갈아치워 '호타준족' 김도영, 사상 첫 월간 '10-10'... '30-30' 부푼 꿈



1위 질주에 '영건'들의 눈길 끄는 활약까지 있어 KIA 타이거즈 팬들은 즐겁다. 시즌 전 '우승후보'로 꼽혔던 KIA는 부상 약재에도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면서 1위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선발진이 빠르게 승수를 쌓아가면서 '기싸움'을 해주고 있고, 두 번의 연장전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오는 등 '뒤틀린 싸움'에도 강하다. 첩첩 필승조와 합

께 고르게 터지고 있는 방망이가 매일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시즌을 보내고 있는 KIA는 굵직한 영건들의 활약에 반색하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정해영이 득직한 모습으로 승리를 지키고 KBO리그에 이름까지 남겼다. 정해영은 지난 24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전에서 시즌 12번째 등판에 나섰다. 6-2로 앞선 9회말 무사 1-2루에서 출격한 정해영은 내야안타와 땅볼로 유승철이 남겨둔 주자의 홈인을 허용했지만, 경기를 마무리하는 3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우면서 6-4 승리를 이끌었다.

KIA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면서 정해영은 KBO 리그 역대 22번째 100세이브 기록을 달성했다. 여기에 '최연소 100세이브'라는 타이틀도 붙었다. 정해영은 22세 8개월 1일 만에 100세이브를 채우면서 임창용이 가지고 있던 '23세 10개월 10일'이라는 최연소 기록을 24년 만에 갈아치웠다. KBO통산 19번째 4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 기록도 동시에 만들어졌다. 정해영은 2020년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1차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5년 차 선수. 위기의 불펜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KIA를 대표하는 마무리까지 올랐다. 정해영은 2020년 6월 25일 처음 1군에 콜업된 뒤 7월 1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1-3으로 뒤진 9회초에 등판한 그는 2사에서 한화를 대표했던 타자 김태균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

리하면서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그리고 9회말 공격이 끝난 뒤 정해영은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9회말 나지완의 끝내기 안타로 KIA가 역전승을 펼쳤고, 정해영은 프로 데뷔전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정해영의 첫 세이브는 이해 8월 30일 KT와의 홈경기에서 만들어졌다. 프로 첫 해 47경기에 나와 38.1이닝을 소화한 그는 3.29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 4패 1세이브 11홀드를 기록했다.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마무리로 뒤편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팀의 마무리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마무리 첫해 34세이브를 올리는 등 최연소 30세이브 기록을 만들었고, 2022년 9월 24일에는 타이거즈 최초 2년 연속 30세이브를 달성했다. 2022시즌 32개의 세이브를 기록한 그는 지난 시즌 부진으로 한 달 이상 2군에 머물기도 했지만 23개의 세이브를 완성하면서 타이거즈 최초 3년 연속 20세이브 주인

공도 됐다. 올 시즌에는 스피드와 힘을 더해 더 견고한 모습으로 마운드를 지키고 있다. 시즌은 이제 김도영에게 향한다. '30홈런-30도루'가 팬들이 기다리는 기록이다. 프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은 김도영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다. 리그에서도 손에 짚는 발은 물론 김도영에게 기대했던 '김도영표' 장타도 쏟아지고 있다. 김도영은 26일 키움전에서 시즌 10호포를 기록하면서 KBO리그 사상 첫 '월간 10-10'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다음 목표는 '30-30'이다. 국내 선수로 따지면 2000년 박재홍에 이은 24년 만의 '30-30' 도전이다. 정해영에 이어 김도영이 24년 만에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정후가 하면 나도 한다 김하성 2타점 결승타

이틀 연속 멀티히트...팀 5-2 승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2타점 결승 적시타를 포함해 이틀 내리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치고 타율을 끌어올렸다. 김하성은 25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치른 방문 경기에서 5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때리고 타점 2개를 수확했다. 김하성의 타율은 0.240(96타수 23안타)으로 올랐고, 타점은 15개로 늘었다. 샌디에이고는 5-2로 이겼다. 김하성은 안타와 볼넷 2개로 묶은 1회초 1사 만루 첫 타석에서 우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로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보냈다. 3회 유격수 뜬공으로 잡힌 김하성은 4-0으로 앞선 6회초 무사 1루의 세 번째 타석에서는 3루수 쪽으로 굴러가는 기습 번트 안타로 출루한 뒤 콜로라도 3루수의 1루 약속구로 2루에 안착했다. 김하성이 묶은 무사 2-3루에서 샌디에이고는 잽슨 메릴의 땅볼로 추가점을 내 쐈기를 막았다. 김하성은 8회에는 유격수 땅볼로 몰려났다. 김하성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안타 2개씩 쳐 시즌 멀티 히트 경기를 5경기로 늘렸다. 수비에서도 김하성은 팀 승리에 기여했다. 4회 1사 1-2루에서 엘리아스 디아스의 좌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타구를 넘어지면서 막았다. 내야 안타로 기록됐지만, 김하성이 실점을 막은 덕분에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 맷 윌드론은 이어진 만루 위기에서 두 타자를 범타로 돌려세워 한 점도 안 주고 이닝을 마쳤다. /연합뉴스

“한국 배구 ‘영광의 시간’ 재현 최선 다할 것”

이사나에 라미레스 남자부 감독·여자부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

국제 대회에서 연달아 실망스러운 모습을 노출한 남녀 배구대표팀이 외국인 사령탑과 함께 '영광 재현'에 도전한다. 지난달 선임된 이들은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배구에 '영광의 시간'을 되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자부 지휘봉을 잡은 이사나에 라미레스(40·브라질)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맡게 돼 영광이다. 최선을 다해서 남자 배구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라미레스 감독은 바레인 남자배구 대표팀을 거쳐 지난해 파키스탄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으로 향하여 아시아게임에서 한국 남자배구에 셋아웃(3-0) 승리를 따냈다. 당시를 떠올리며 라미레스 감독은 "상대 팀 감독으로 한국을 3년 동안 주시했다. 한국 남자배구는 미들블로커 수준을 올려야 한다.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미들블로커를 경쟁을 통해 키워내야 한다. 아시아 선수는 체력이 부족해,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기량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부 감독을 맡은 페르난도 모랄레스(42·푸에르토리코) 감독은 "한국 여자배구가 세계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안다. 과거 좋은 성적을 냈던 자리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국 여자배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때문에 지원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수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외부에서 바라본 한국 배구의 약점도 가감 없이 지적했다. 라미레스 감독은 "한국은 좋은 기술을 가져서 까다로운 팀이다. 현대 배구는 미들블로커와 파이프(중장 후위) 공격 활용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걸 많이 사용 안 한다는 걸 알았다. 또한 하이볼(제대로 리시브가 이뤄지지 않아 높게 뜬 공) 상황도 어려워하다. 파키스탄 감독으로는 이 부분을 공략했다"고 했다. 이어 "대신 한국 선수는 서브가 좋다. 현대 배구는 서브가 좋아야 승리할 수 있다. 한국 남자배구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있다. 조직력 훈련으로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생각에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모랄레스 감독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연전연패한 여자배구 대표팀을 두고 "한 가지만을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술과 전략적으로 보완점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지난주부터 진천체육관에서 훈련을 소화 중인 모랄레스 감독은 "특정 부분이 향상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한 배구 외적으로는 V리그 구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상부상조하면서 뛰어난 선수를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남녀 배구가 공유하는 고민은 세대교체다. 라미레스 감독은 다음달 1일에 소집할 '1기' 남자대표팀 가운데 고고 졸업 후 이탈리아 1부 리그에 직행한 이우진(베로 발리 몬차)과 미들블로커 최준혁(인하대) 등 '비(非) V리거'를 선발했다.



이사나에 라미레스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선임 감독(왼쪽)과 페르난도 모랄레스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선임 감독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미레스 감독은 "최준혁은 미들블로커로서 풋워크가 무척 좋다. 205cm라는 신체 조건에 만족한다. 잠재력을 보고 선발했다. 이우진은 친분 있는 이탈리아 코치에게 물어봤는데, 아직 정식 1군 스퀴드에는 못 들어가도 열심히 연습하고 수준도 높다고 하더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불렀다"고 설명했다. 여자배구는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김연경(흥국생명)과 양효진(현대건설) 등을 주축으로 해 4강 신화를 썼다. 올림픽이 끝난 직후 이들은 일제히 대표팀 은퇴

를 선언했고, 후임 감독인 세사르 곤살레스 감독은 세대교체에 실패했다. 모랄레스 감독은 "김연경을 비롯한 한국 여자배구 황금세대가 떠나고 못 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세대교체 시기에는 과도기가 필요하다"며 "두 시즌 동안 세대교체 과도기를 보냈다고 본다. 이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데, 이번에는 과도기를 잘 버티고 세대교체를 완성할 준비가 됐다. 스타플레이어 공백을 팀플레이로 채운다면 가능하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